

## 유엔 전문가,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이 리더십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

서울 (2022년 11월 21일) –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패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전문가인 토마스 앤드류 특별 보고관은 6 일간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을 마치며 "한국은 미얀마 군부가 5 천 4 백만 명의 사람들을 계속 인질로 잡고 있는 수단을 박탈하고 도움이 절실한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미얀마로의 강제 송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발표하는 등 그간 취해온 긍정적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이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잔인한 폭력을 고려할 때, 어느 국가도 미얀마에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송환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 정책은 이 지역 모든 국가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은 경제가 활력 넘치는 지역 강국이며 ASEAN+3 협력체 참여국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국을 방문하며 알게 된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포위당한

와중에도 저항하며 군사 독재의 족쇄를 푸는 데 전력투구하는 국민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한국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미얀마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공감을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전환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문을 마무리하며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군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군부와 관련된 주요 경제 목표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미얀마 이웃 국가들도 이런 조치에 동참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인도적 비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미얀마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업 지원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미얀마인들이 착취와 학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민 지위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특별보고관은 밝혔다.

앤드류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방문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및 인권 대표부, 미얀마 진출 한국 기업 대표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국민통합정부(NUG)의 주한 대표 및 현재 미얀마의 민족 그룹(버마족, 카렌족, 친족, 카친족, 몬족, 라카인족)의 구성원과 만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방문했으며, 광주 미얀마 연대 운동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끝

####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토마스 앤드류

특별보고관, 독립 전문가, 실무 그룹은 특별 절차로 알려진 제도의 일환이다. 특별 절차는 유엔 인권 시스템의 독립적인 전문가 단체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립적인 사실 조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총칭이다. 특별 절차는 특정 국가별 상황 또는 전 세계에서 특정 주제 관련 상황을 다룬다. 특별 절차를 구성하는 전문가는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하며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활동한다. 이들은 모든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개인 자격으로 기여한다.

국가 페이지: [미얀마](#)

자세한 정보 및 미디어 요청은 재키 잘크버그(Jacqui Zalcborg) ([Jacqui.zalcborg@un.org](mailto:Jacqui.zalcborg@un.org)) 에게 문의하십시오.

다른 유엔 독립 전문가에 대한 언론 문의는 레나토 로사리오 데 수자 (Renato Rosario De Souza) ([renato.rosariodesouza@un.org](mailto:renato.rosariodesouza@un.org)) 또는 다리샤 인드라굽타(Dharisha Indraguptha) ([dharisha.indraguptha@un.org](mailto:dharisha.indraguptha@un.org))에게 문의하십시오.

트위터: [@UN\\_SPExperts](#) 에서 유엔의 독립 인권 전문가와 관련된 뉴스를 팔로우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세요.**

*#Standup4humanrights*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